



# 自然에 대한

# 사랑의 和解

李 賢 宰

自然의 破壞汚染에 의한 公害와 公害病은 “自然을 征服한다” “自然을 支配한다” 등등의 放言을 서슴치않으면서 無所不爲로 自然에 挑戰하여 設치던 人間들의 無節制한 行動에 極도로 성이 난 大自然이 참다 참다못해 내뿜는 毒氣요 報復이라고 여겨진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人間은 日光, 大氣, 大地, 물, 動植物등 自然의 無限한 恩惠를 입으며 오늘의 文明을 쌓아오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自然을 保護한다” 이 말부터 傲慢不遜하지 않은가?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自然의 保護속에 살아왔고 또 自然을 떠나서는 잠시도 存在할수 없는 可憐한 處地이며 알고보면 自然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太陽의 빛과 熱을 쬐이고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땅에서 生育된 곡식과 야채를 먹고 동물과 물고기를 먹으며 生을 營爲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앞에서 말했지만 자연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自然쪽에서 보면 사람이 이 地球에서 없어도 自然은 存續할수가 있다. 어찌면 사람이라는 극성스럽고 고약한 動物들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自然으로서 健全하게 繁盛할수 있을런지 모른다. 사람들이 없으면 森林을 찍어내고 깎아내지도 않을것이고 山野를 毀損하지도 않을것이며 河川이나 바다가 더럽혀지거나 埋立될리도 없고 鳥類나 魚貝類들이 濫獲되지도 않을 것이니 自然으로서 얼마나 平和스러우며 그야말로 自然스럽겠는가.

우리 人間이 自然에 대해서 진실로 謙虛하고 畏敬해야 하는 所以다.

環境破壞로 인한 公害에 關해서는 汎世界的으로 이미 많은것이 指摘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成長과 開發이라는 時代의 要請과 當爲에 놀려 그 危機感의 表出이 制禦되어 온것이 사실인만큼 뒤늦게나마 이 人類的 當面課題에 대해서 보다더 깊은 關心을 提高할 必要가 切實한것이다.

알래스카·에스키모인들까지 體內에 DDT가 蓄積되고 母乳를 分析하니 DDT, BHC등 農藥과 PCB, 水銀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有害物質이 檢出되었다고 한다.

南極의 펭귄에서도 DDT, 고래에서는 PCB, 北極의 어름덩이에서조차 납(鉛)이 檢出될 정도로 地球의 汚染은 이제 極에 達한 것이다.

물론 局地的인 回復증세도 약간 나타나기는 하지만 地球전체로 볼때엔 汚染物質量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現象이다. 앞으로 世界人口가 70億에 이르고 그 個個人이 오늘의 美國程度의 平均生活水準에 다다른다고 假定한다면 環境汚染値는 적어도 지금의 10배以上이 되리라고 學界權威者는 推定하고 있다. 오늘날 先進國의 沿岸과 內海는 所謂 “죽임의 물결”이 철석대고 있으며 巨大都市의 大氣는 各種 化學物質의 混合體가 되어버렸고 到處에서 酸性비의 被害를 들먹이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10감절이나 되었을적에 과연 이 地球의 自然시스템은 제대로 건딜수 있을것인가?

그 속에서의 人類的 存命은 可能한가? 에 대한 解答을 얻기가 어려운것이다.

舊約聖書에는 “노아”의 洪水에 의한 自然의 破局

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自然의 사소한 變調도 人間의 生存을 容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에 이어지는 “바벨城塔”의 이야기도 神을 등진 人間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無謀한 試圖를 하다가 無慘하게 崩壞해버린 하나의 終末記的 傳說이라고 볼수있다.

오늘날은 “단추”하나만 누르면 地球가 破滅되는 核恐怖의 均衡속에 억지로 平和가 유지되고 있지만 破局의 可能性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그 威脅이 尙存하는데에 그에 겹쳐서 爆發的인 人口增加와 環境破壞의 生態學的 終末論이 抬頭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可恐할 일이다.

이와 같은 生態學的 人類破滅의 徵候는 人間이 自然의 攝理를 逸脫하고 “萬物의 靈長”을 自處하며 虛勢를 부리면서 構築한 所謂 “進歩와 文明”이라는 蜃氣樓의 막다른 回廊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時点에서 우리 人類가 選擇할수 있는 오직 하나의 大道는 地球가 人間만의 것이 아니라는 뼈저린 反省을 바탕으로 하여 自然에 대한 사랑의 和解를 眞正으로 誓約하고 全人類의 合意아래 實踐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시바빠 自然의 “하모니”에 따르고 同參하며 自然의 生態系로 하여금 秩序와 “리듬”을 되찾는데 발맞추어야 한다.

이때야말로 老子가 말한 “自然의 품속을 떠나 人爲로 달리는 세상대중의 지나침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경지를 배워, 萬物이 스스로 이룩하는 自然을 믿고 의지할지언정 이에 거슬리는 作爲는 감히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無爲自然”의 思想을 진지하게 吟味할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學不學 復衆之所過 以恃萬物之自然而不敢爲…  
…老子第六四章中)

실제로 自然은 人間을 속이는 법이 없다. 추호의 거짓도 없다. 콩심은데 콩나고 팔심은데 팔난다. 거짓이라는 뜻과 속인다는 뜻을 함께 가진 “僞”라는 漢字는 人과 爲를 합한 글자다. 僞善, 僞計, 僞裝, 僞作, 僞造 모두가 虛僞의 産物이다. 人爲가 온갖 거짓을 만드는 장본인이며 人爲가 天地自然을 混濁케 하고 그 運行法則마저도 뒤흔드는 重罪를 저지르고 있다.

때마침 반가운 新聞記事 한토막을 읽게된다. 도토리에서 뽑아낸 아콘酸(Acomic-Acid)으로 核物質 生産工程에서 나오는 尿酸이나 環境汚染의 主犯인 카드뮴, 水銀, 鉛, 니켈 등 重金屬과 有機溶液을 除去할수있는 技術을 우리나라 에너지研究所 張仁順, 尹明煥博士팀에 의해 世界最初로 開發했다는 기쁜 뉴스인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여겨온 雜木類의 하나인 도토리나무가 이처럼 값지고 놀라운 役割을 맡고 나설줄이야……

그리고보면 아직 人智가 미치지못하였을뿐, 自然으로 生成된 植物의 울타리안에 어찌 雜木, 雜草란 것이 있을까보냐. 제각기 제나름의 몫을 간직한 소중한 高貴한 存在들인 것이다.

釋迦는 일찌기 「一木一草 皆有佛性」이라고 가르쳤다.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도 모두가 佛性이 깃들여 있다는것이리라. 새삼스레 그 深奧한 뜻을 되새기게 한다.

[筆者：前國會議員・初代國立公園委員・本會理事]

### 本欄의 愛讀者여러분께……

「自然界와 人間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가 體驗했거나 듣고보고 平素느껴온 自然界와 人間關係에 대한 隨想이나 主張, 또는 健康한 삶의 거울이 될 體驗談등을 2百字원고지(1회분 18枚·分量이 많으면 連載함)에 담아 投稿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愛讀者여러분은 남달리 自然을 아끼고 사랑해오신 분들로서 여러분의 글이 널리 알려져 국민속에

共感帶를 形成케되어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科學文明國이 다같이 고민하는 自然回復의 大業達成을 위해 先導役割을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 보내주실곳 : 우 110-053 서울 종로구 내자동19 사학회관 706호  
한국 국립공원협회 사무국 편집실

△ 마감일자 : 수시접수함.  
△ 집필자의 주소, 성명과 인물사진1매 同封바랍니다(가급적 직업 또는 경력소개오망)  
△ 채택된 글이 게재되면 본지 10부를 우송해 드립니다.